

정창길 사장, 한·인니 비즈니스 서밋 참석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14일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공동 주최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다.

정 사장은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후, 팡가무스 수력사업 건설현장과 자카르타 법인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승훈 사장, 대구경북본부 안전점검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 사장은 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본관 1층 문화관을 방문해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동내 관리소를 찾아 관리소 현장을 둘러보는 등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했다.

조석 前한수원 사장, 원자력계 조찬강연회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이 17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이관섭) 주관으로 웨라톤 팔레스 강남 호텔에서 열리는 제190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에서 강사로 나선다.

이날 조찬강연회에서 조석 전 사장은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원자력'이란 주제로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원자력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인사

산업부

▲원전산업관리과장 최형기

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설계기준 처장 이만수 ▲호남본부 건설기술처장 김용두 ▲감사실 시설감사부장 한상연 ▲건설본부 일반철도처 총정권부장 김용길 ▲수도권본부 시설관리처 시설총괄부장 전병규 ▲감사실 시스템감사부장 한창우 ▲기술본부 신호처 중앙제어설비부장 박종원 ▲KR연구원 기술연구처 전기연구부장 전광준 ▲수도권본부 기술처 전력전력PM부장 김연근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문영석 ▲석유 가스정책연구본부장 도원재 ▲전력정책연구본부장 이유수 ▲연구기획본부장 이근대 ▲가스정책연구실장 서정규 ▲전력정책연구실장 김현제 ▲원자력정책연구실장 노동성 ▲에너지수요관리연구실장 소진영



이호진
금강에너지 사장

"마라톤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군대에서 얼떨결에 포병대 대표 선수로 나가 포상휴가도 받고 조기 진급했던 게 첫 시작이었죠. 마라톤의 좋은 추억과 느낌을 살려 90살까지 뛰고 싶습니다." 이호진 금강에너지 사장은 1981년 군대 포병시절에 처음 마라톤을 접했다. 이등병 시절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 선인들의 걱정을 샀지만 완전 군장 구보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며 마라토너로 인정 받았다고 이 부장은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1군단 소속 포병대 대표로 나가 임진강변을 뛰는 군장병 마라톤 대회에서 당당하게 3위로 입상, 포상 휴가와 조기 진급까지 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제대 이후에도 학교 마라톤 대회와 각종 일반 대회에 참여하며 마라톤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어요. 특히 전기사랑마라톤 대회는 2012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간 화합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또 업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며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전기사랑마라톤 대회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부장은 이번 마라톤 대회를 위해 주말마다 동료 직원과 함께 집 주변 도로 15km를 돌면서 체력 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기록보다 직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5km 코스를 선택했다는 게 이 부장의 설명이다.

이 부장은 앞으로도 기록보다 근력 향상

"전기사랑마라톤 연례 행사로 참여...마라토너로 90살까지 뛰고 싶어"

참석하고 있죠. 따뜻한 날씨 속에서 마라톤을 할 수 있어서 연례행사처럼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강에너지는 올해 대회에 총 66명이 참가할 정도로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내 단합대회와 가족 모임,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긍정적인 취지로 직원들에게 공익했고, 직원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절반 이상이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대회 참가를 독려했고자 여러 직원들에게 마라톤의 긍정적인 면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좋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도 가족들과 함께 야외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고 따뜻한 날씨 속에 시원

과 체력 유지에 중점을 두고 90살까지 마라톤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즐기겠다고 강조했다.

"마라톤은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정신과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또 함께 뛰면서 힘든 순간에 서로 의지하고 이를 극복해 나간다는 점에서 인생에 교훈도 가져다주죠. 마라톤의 즐거움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체력 관리에 유념하겠습니다. 또 전기사랑마라톤 대회가 전기업계에 담담하고 있는 구성원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김승교 기자 kimsk@

한전산업, 세번째 사랑의 쌀 나눔 활동 펼쳐

한전산업개발(사장 주복원)이 세 번째 사랑의 쌀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전산업은 지난 9일 동대문구에 위치한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에 사랑의 쌀 1t을 기부하고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의 메인 테마인

'사랑의 쌀 나눔'의 일환으로 전개된 이번 행사는, 지난 연말 서울역 인근 파스한 채움터 급식지원과 올해 설 명절 서울 중구 아동복지시설 쌀 전달에 이은 세 번째 나눔 활동이다.

그동안 전달한 쌀은 총 4t에 달한다. 이번 쌀 나눔 봉사활동은 국내 최대 규모

무료급식단체인 '밥퍼'와 함께 했다. 이날 직접 무료급식 행사에 참여한 주복원 사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자원봉사단은 밥, 반찬 만들기 는 물론, 배식활동과 설거지 등 급식 전 과정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사용한 사랑의 쌀은 본사 임직원과 발전노동조합원(위원장 최성규)들의 기부로 마련했다. 주요 사업지역 중 하나인 충남 태안 지역의 쌀을 구매해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데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위대용 기자 wee@



주복원 한전산업 사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9일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석해 배식을 하고 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에 김성관 이사장 추대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3일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박종길 대한전기협회 부회장 직무대행, 장세창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박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2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자리는 지난 2월 전기총회에서 선출돼 새문새문 임기를 시작한 류재선 회장과 장세창 회장을 축하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이날 전기계 주요 단체장들은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으며 부회장과 간사 등은 추후 협의를 거쳐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각 단체들은 계획돼 있는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새롭게 회장을 맡은 김성관 이사장은 "협의회가 전기계 주요 단체 간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현안사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는 모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시현 기자 jinhsh@

바른정당 '에너지혁명 특별위원회' 출범



신재생에너지 확대·발전을 위해 바른정당에서 '에너지혁명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은원 의원(바른정당, 전북전주시)은 9일 국회 본관에서 '에너지혁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초대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바른정당 에너지혁명 특위에서는 정 위원장과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관계 정부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태양광에너지 확대·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 태양광 시범사업의 추진경과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도 이뤄졌다. 또 태양광 농가발전소의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논의도 이어졌다.

도시가스협회 정총...제 14대 협회장에 구자철 회장 재선출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는 10일 웨라톤서울팔레스호텔에서 2017년도 제1차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4대 회장으로 구자철 예스코 대표이사를 재선출했다. 또 신임 부회장으로 윤종연 전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을 선임했다.

윤종연 신임 부회장은 연세대 경제학박사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영학 석사와 미국 플로리다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 지역혁신지원담당관, 무역정책과장, 외교통상

부 주이탈리아공화국대사관 공사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을 역임했다.

도시가스협회는 올해 ▲미래전략연구와 혁신활동 강화 ▲선도적 경영여건 개선과 제도개혁 ▲고객만족 경영과 에너지복지 확대 ▲신수요 창출과 마케팅 역량 강화 ▲수송용 시장의 사업력 강화 ▲계량시스템 선진화와 집단에너지 대응 ▲안전관리 강화 ▲경영지원, 협력사업, 대외협력 강화 등 총 9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형식 기자 azar76@



유니센서는 '가족사랑'입니다

평상시에 LED센서등으로 사용되는 유니센서-재난 및 화재시에는 가족을 위협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비상조명등으로 전환되어 가정을 위협에서 안전으로 지켜줍니다



국내최초, LED센서등 + 비상조명등 '유니센서' 개발

비상조명 전문기업 유니온라이트가 평상시에는 센서등으로 사용하다 화재나 정전으로 전원공급이 차단되면 즉각 비상조명등으로 전환하는 LED센서등 '유니센서'를 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비상조명등 설치가 의무인 고층건물뿐 아니라 가정의 현관이나 계단에 설치하면 긴급상황 발생시 우리가족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유니센서' 이제 가정의 안전필수품입니다.

2016년 한국전기문화대상 대통령 표창수상
 2016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총 5회수상)
 2016년 특허경영대상 수상 수상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4다길 47(창동)
 Tel. 1644-0408 Fax. 02-9060-600



USEN-200 (비상조명 겸용 센서등)
 KFI (형식승인번호 비16-14)



유니센서 창립 30주년
 1987-2017